

# ‘김정숙 여사 옷값’ 靑 공개 거부… 네티즌 직접 ‘계산’ 나섰다

### 대통령비서실, 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네티즌, 코트·롱재킷·원피스·반지 등 집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과거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연출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별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 등을 통해 촬영된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착용했던 옷과 장신구들을 직접 찾아내 이에 사용된 예산을 계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식석상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등

을 착용했다. 또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각 의상과 장신구의 가격을 파악하는 작업까지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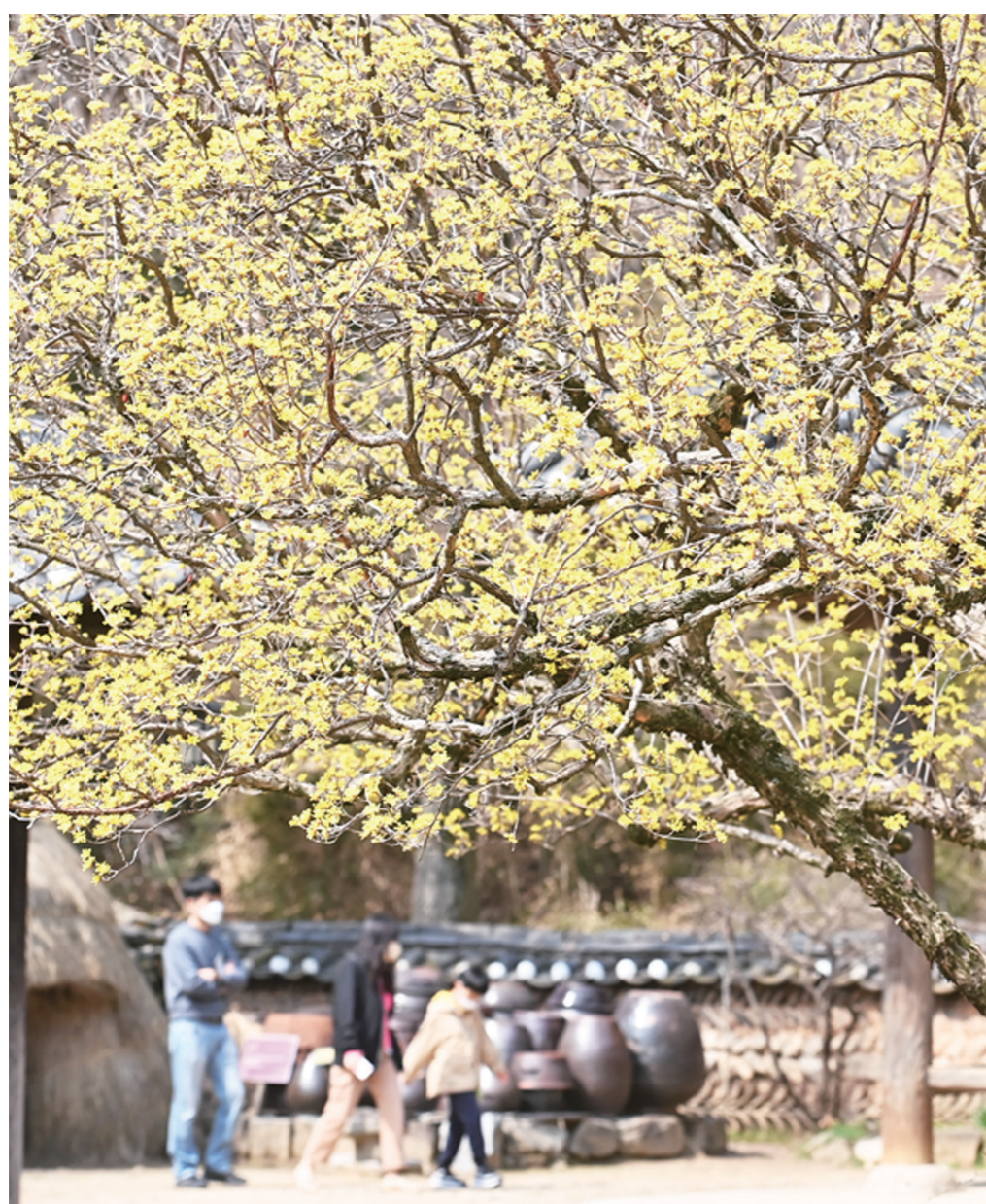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 비공개로 전환된다”며 의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



고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남진기자



‘산수유꽃이 피었네’ 휴일인 27일 오전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열린 ‘웰컴 투 조선’ 봄 시즌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산수유꽃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 술취한 여성 동료 성폭행·신체촬영 남성들 징역형 선고

### 만취해 몸 가누지 못하자 무인텔 데려가 범행…엄벌 탄원

술에 취한 여성 동료를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폭행 장면과 신체를 촬영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25)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

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C 씨를 전남 순천의 한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들이 C 씨를 부축해 무인텔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장면은 고스란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날 오전 5시께 순천에서 광양까지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흙친 오토바이로 농작물 털어간 60대 남성 실형

### “절도로 10회 이상 실형…출소 6개월만에 또 재범”

흙친 오토바이를 타고 상습적으로 농작물을 털어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10시40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제조공장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B씨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온 뒤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 창고로 이동해 들개 7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흙친 오토바이 바구니에 농작물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14일까지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 더 농작물을 훔쳤고 1번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6개월 만

에 다시 재범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07년 5월 청주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A씨는 이후 같은 죄로 세 차례 더 철창 신세를 지다가 지난해 6월 출소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